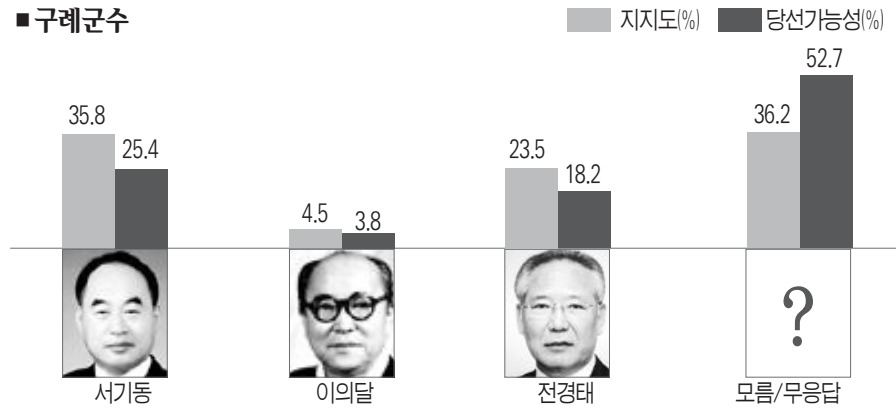


응답률은 지역에 따라 14.3~25.6%였다. 성별·연령별·지역별 등 기본사항과 각 지역 단...

곳곳 박빙... 막판까지 피말리는 득표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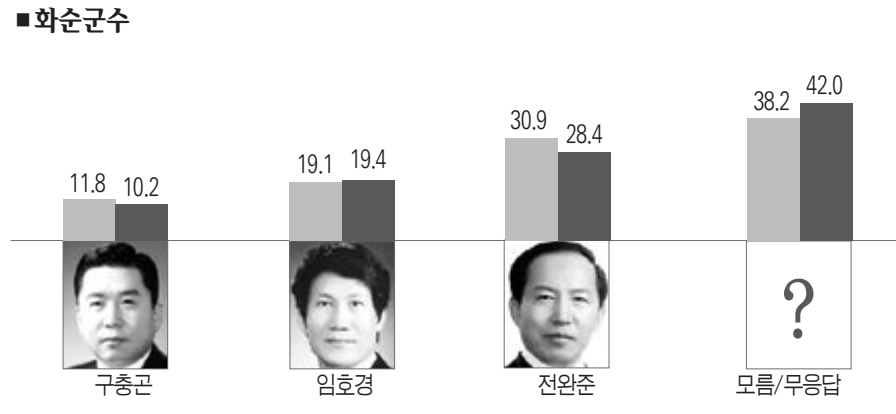


50대 서기동·읍지역 전경태 지지

■ 구례군수

민주당 서기동 후보와 무소속 전경태 후보가 맞서고 있는 구례군에서는 서 후보가 35.8%의 지지율을 얻어 23.5%를 얻은 전 후보를...

민주당 정세가 상당히 39.7%대 32.4%로서 후보와 전 후보의 격차는 7.3% 포인트에 불과했다. 지역별로는 서 후보와 전 후보의 지지도가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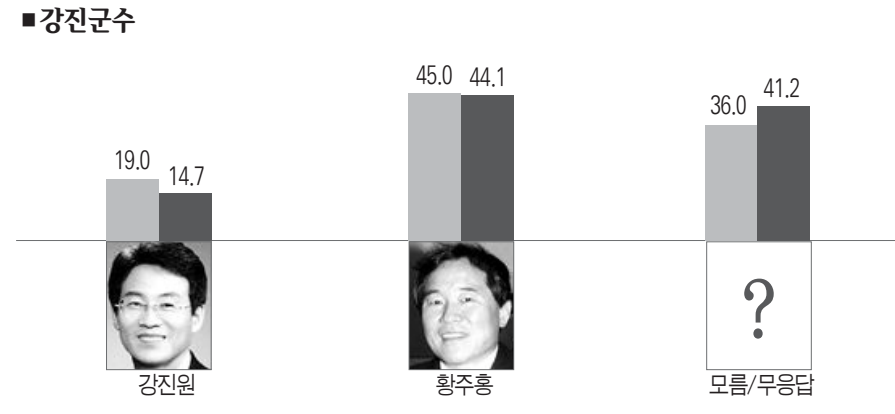


민주당 지지율 급락... 전완준 앞서

■ 화순군수

현직 군수인 무소속 전완준 후보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악재속에서도 무소속 임호경 후보와 민주당 구충곤 후보에 두 자리 수 이상의 지지를 우위를 보이고 있다.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 무소속 전 후보는 30.9%의 지지율을 나타냈으며 무소속 임호경 후보는 19.1%, 민주당의 구충곤 후보는 11.8%를 기록했다.

여기에 화순군민의 민주당 지지율이 42.7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, 막판 민주당 바람이 현실화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. 여기에 모름, 무응답 등이 38.2%나 된다...



황주홍, 전연령층서 강진원 압도

■ 강진군수

두 후보가 맞선 강진군수 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 반대운동을 해온 황주홍 현 군수가 민주당 공천을 받은 강진원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무소속 황 후보는 45.0%의 지지율을 기록, 19.0%에 그친 강 후보를 26.0% 포인트 차로 앞섰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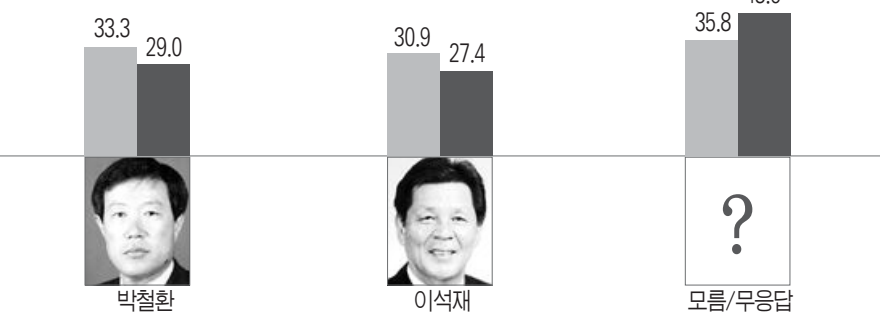
로 12.7% 포인트차이로 황 후보가 강 후보를 앞서면서 강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서 우리는 프리미엄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지역별로는 가선거구(강진읍, 도암·신전·성전면)에서는 황 후보가 48.7%대 15.4%로 강 후보를 33.3% 포인트 차로 압도한 반면 나선거구(군동·칠량·대구·마량·작천·병영·읍전면)에서는 40.0%대 23.9%로 강 후보와 황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3.1% 포인트로 줄었다.

■ 해남군수

민주당 박철환 후보와 무소속 이석재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다. 우선, 지지 후보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박철환 후보가 33.3%의 지지율을 차지했고 무소속 이석재 후보가 30.9%를 기록했다. 박 후보는 민주당 전략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을 좀처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, 무소속 이석재 후보는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평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.

민주 공천잡음에 이석재 반사이익

■ 해남군수



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 해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은 50%에도 못 미치는 47.7%를 나타내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. 민주당 지지층에서 민주당 박 후보는 36.8%의 지지를 얻는데 그친 반면 무소속의 이 후보는 22.2%의 만만찮은 지지율을 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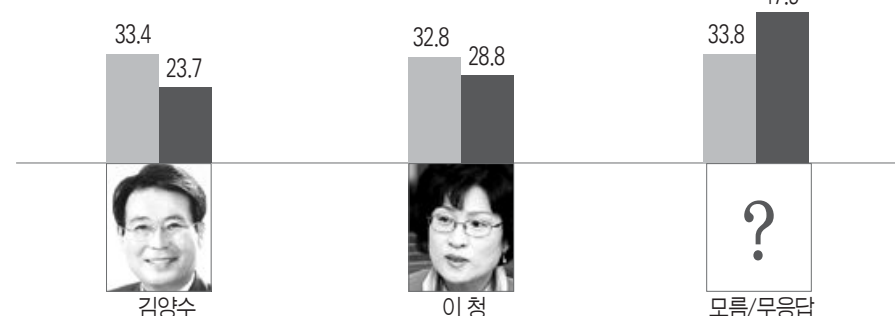
여 눈길을 끌었다. 특히, 무소속 이 후보는 지지 정당이 없는 계층으로부터 31.7%의 지지율을 얻은 반면 민주당 박 후보는 20.2%의 지지율을 나타내는데 그쳤다. 해남군수 선거는 35.8%로 집계된 모름, 무응답 등 부동층 표심의 향배에 당락이 결정지어질 전망이다.

■ 장성군수

민주당 김양수 후보와 무소속 이청 후보가 '박빙'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민주당 후보 경선에 앞서 일찌감치 후보 단일화를 이끌었던 김양수 후보가 33.4%의 지지율로, 32.8%의 지지율을 얻은 무소속 이청 후보를 0.6%포인트, 간발의 차이로 앞섰다. 모름·무응답은 33.8%였다. 김 후보는 후보 단일화 이후 지역 국회의원 이낙연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당원 결속을 통해 꾸준한 상승세를 타온 것으로 알려졌다. 김 후보는 지난 2월 본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3.7%로, 48.7%를 얻은 이청 후보에게 큰 차이로 뒤졌지만, 100여 일 만에 이청 후보를 앞서는 양상을 보였다. 반면, 당선 예상 후보를 묻는 질문에서는 이청 후보가 28.8%로, 김양수 후보(23.7%)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 김 후보는 40대(35.6%)와 50대(33.2%)에서 지지도가 이 후보에 비해 앞섰으며, 이 후보는 19~39세(36.9%)에서 지지율이 높았다.

김양수 장년층, 이청 젊은층 우세

■ 장성군수



지역별 지지도에서는 이 후보가 장성읍과 서삼·북일·북아면에서 36.2%의 지지율로 김 후보(30.5%)를 앞섰으며, 김 후보는 나머지 지역 모두에서 이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만, 장성군수 선거는 두 후보가 0.6%포인트 차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남은 9일간의 선거운동을 어떻게 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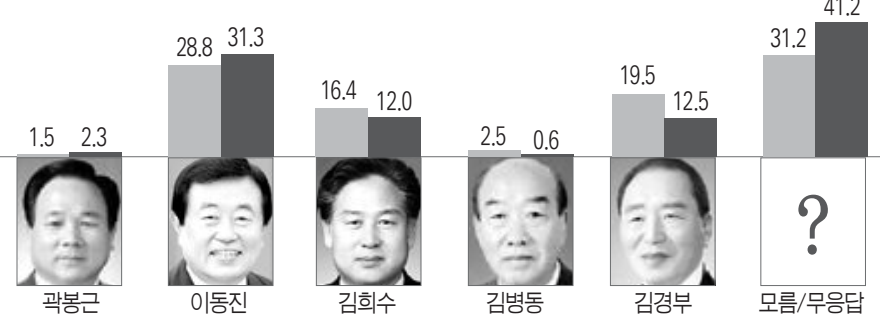
치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. 한편, 장성군 유권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. 응답자 83.1%가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답했으며, 11.5%는 아마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. 반면 투표하지 않겠다는 2.2%에 그쳤다.

■ 진도군수

박연수 전 진도군수의 직무 정지 '무주공산'이 되면서 5명의 후보가 한꺼번에 몰려 선거분위기가 가열되고 있는 지역으로,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쥔 이동진 후보를 무소속 후보들이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. 이 후보는 300명을 대상으로 한 지지후보 조사결과, 응답자의 28.8%가 지지하겠다고 답해 선두를 달리고 있다. 무소속인 김경부 후보는 19.5%, 무소속 김희수 후보는 16.4%의 지지율을 추격하고 있다. 이 후보는 지난 2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 전 군수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졌지만 이번 조사에서 1위로 역전하는데 성공했다. 무소속 김병동 후보는 2.5%, 한나라당 광복군 후보는 1.5%의 지지를 얻는데 그쳤다. 이 후보는 19~39세 연령층에서 높은 지지율(35.5%)을 얻은 것을 비롯,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 김경부 후보는 40~49세,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각각 23.8%와 22.7%의 지지율을

이동진-김경부 '엎치락뒤치락' 혼전

■ 진도군수



보이며 이 후보를 오차 범위(±5.7%) 내에서 추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 후보는 또 '반드시 투표하겠다'고 답한 적극적인 선거 참여층 가운데 31.1%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, 김경부 후보는 이들 가운데 21.0%가 지지한다고 답했다. 김희수 후보는 18.3%로 뒤를 이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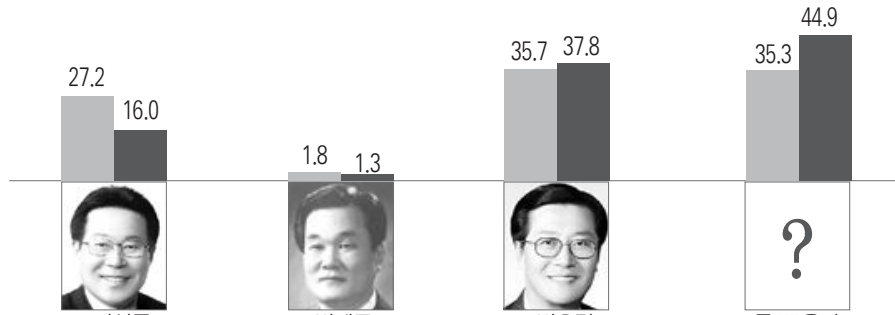
'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'는 질문에서는 이 후보가 31.3%로 가장 높았고 김경부(12.5%), 김희수(12.0%), 광복군(2.3%), 김병동(0.6%) 등의 순이었다. 하지만 '모른다' '무응답'이 31.2%에 달해 선거 관세는 여전히 예측 불허라는 게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.

■ 신안군수

무소속인 박우량 현 군수가 재선 고지로 줄달음치며 앞서고 가운데 민주당 강성종 후보의 추격이 만만치 않아 불꽃 튀는 접전이 예상된다. 박우량 군수의 지지율은 35.7%로 여전히 다른 후보를 현저히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. 민주당 강성종 후보는 27.2%로 뒤를 쫓고 있으며 무소속 박세준 후보의 지지율은 1.8%에 그쳤다. 하지만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는 비율이 35.3%에 달하고 50세 이상 유권자의 38.6%는 여전히 표심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데다, 14개 섬으로만 이뤄져 유권자 표심잡기도 녹록지 않아 선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.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37.8%가 박 군수의 당선을 예상해 16%에 머무른 강 후보를 현저히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민주당 지지 계층에 대한 지지도 조사에서도 박 군수는 37.1%로, 강 후보(38.0%)

박우량 우세 속 강성종 맹추격

■ 신안군수



와 비슷한 지지율을 얻었다. 박우량 군수의 지지율은 그러나 지난 2월 실시된 여론조사(51.4%)보다 지지율이 15.7%포인트 급락한 반면 강성종 후보는 19.3%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에 주목할만하다. 민주당이 공천을 마무리하는 등 정치지형이 틀을 갖추고 세 결집을 이뤄낸 것이 지

지를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. 이 때문에 김대중(DJ)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민주당의 심장부인 지역에서 무소속 돌풍이 이어질 지, 민주당이 막판 역전극을 이루며 '뒷발'을 탈환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/임동욱·박지영·최권원·김지을기자 tuim@